

김선옥

6월12일 아침 7시 40분 자원봉사자 두명을 포함한 우리 일행 9명은 김포공항 제1청사에 모였다. 잠을 설치고 나온 모습들이 억려했지만 모두 조금씩은 들떠 있는 듯했다. 짐을 부치고 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질어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출국수속대로 모였다. 장애인들인 우리에게 대한 배려로 출국수속도 총무를 맡은 배복주만 제외하고는 간단히 끝났다. 배복주는 금속탐지기를 몸에 대는 순간 뻐...뻐...뻐... 너무 요란스레 울리는 바람에 특별검사를 받아야 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복주의 이런 수난은 어떤 일인지 계속 되었다.

우리는 비행사측의 배려로 제일먼저 탑승했다. 휠체어를 탄 박영희 단장과 정영란씨는 비행기 입구에서 특수 운반 장치에 실려져 비행기내로 옮겨지고 휠체어는 기내 화물칸에 실렸다. 박영희씨와 정영란씨는 비행기 좌석에 안전벨트로 몸을 고정 시켜야했다. 달리 방법이 없기에. 박영희씨는 이것을 '포박'이라고 불렀다.

13시간의 비행기 여행은 우리를 충분히 지치게 할 만한 것이었지만 앞으로 미국에서의 계획을 정리하기에는 무척 좋은 시간이기도 했다. 처음 해보는 장거리 여행으로 몸은 모두 지쳐있었지만 우리는 씩씩하게 미국에서의 첫 기착지 디트로이트에 도착했다. 디트로이트에서 입국 수속을 받고 워싱턴 행 국내선으

로 갈아타기까지 약 2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공항에 도착하자 노스웨스트 항공사 측에서 장애인이 낀 우리 일행의 편의를 위해 한명의 안내원을 보내 주었다. 그는 우리가 국내선 게이트로 이동을 하기 위해 셔틀 버스를 타기까지 우리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어 우리를 조금은 감동시키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그가 워싱턴 행 국내선 게이트를 잘못 아는 바람에 우리는 작별인사도 나누지 못 한채 헤어졌다.

디트로이트에서 워싱턴 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반정도 걸렸다. 이착륙 할 때 귀가 너무 아팠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고 워싱턴 남쪽에 위치한 워싱턴 내셔널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도 항공사 측의 배려로 안내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공항에는 워싱턴 밀알선교회의 목사가 우리는 마중나와 있었다. 그분의 차로 우리는 워싱턴 북쪽에 위치한 메릴랜드 대학 근처의 우리의 정해진 숙소로 이동했다.

차창너머로 바라본 워싱턴은 정원도시 같았다. 워싱턴을 남북으로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포토맥 강 너머로 워싱턴 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가 세계 장애여성 지도자 포럼이 열리는 대회 장소인 베데스다의 하이아트 레전시로 이동하기까지 이틀동안 묵을 숙소는 한국 교포가 운영하는 데이즈 인이라는 모텔이었다. 무엇보다도 한국 음식을 거의 24시간 묵지 못한 우리에게는 모텔에 이조라는 제법 큰 한국 식당이 딸려 있는 것이 반가웠다.

짐을 풀자마자 시차 때문인지 물려오는 잠을 이기지 못해 대부분이 그대로

쓰러져 잠을 잤다. 저녁 늦지마히 한국 식당에서 김치찌개 등으로 식사를 했다. 역시 우리것이 최고여하는 소리들을 헤가며 오랫동안(?) 한국 음식을 먹은 것이다.

다음날 우리는 비지아아주 페이팩스에 있는 Northern Virginal Traning Cetner를 방문했다. 1927년에 설립된 재활센터는 신체 및 정신 장애인 모두를 수용하는 시설이다. 이곳에서 진료를 맡고 있는 한국 교포 데이빗 리 박사가 우리를 안내했다. 전체 면적이 270 에이커로 너무 넓은 관계로 우리는 차를 타고 둘러보았다. 푸른 나무들이 우거지고 아스팔트보다 잔디가 훨씬 더 많은 이곳은 한국의 웬만한 휴양지 보다 더 아름다웠다. 생활시설, 작업실, 물리치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안내한 리 박사의 설명이다. 한 때는 많은 장애자들이 이곳에서 생활했지만 지금은 4-5명씩 팀을 이뤄 독립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편이기 때문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 2백명 정도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를 태운 차량은 빌딩 6이라는 곳을 지났다. 그곳은 중증의 정신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리박사는 간질환을 가진 이들이 전체의 50 %, 신경계통 장애자가 35%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한 방에는 4명의 장애인들이 간호원 간호보조사 그리고 전문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빌딩 6 옆에는 빌딩 7이 있었다. 이곳에는 중증이지만 어느정도 혼자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빌딩이라고는 하지만 푸른 나무에 둘러싸인 집들이 아름다운 일반 주택을 연상시키고 있었다. 집앞 포치에는 몇명의 장애인들이 나와 앉아 있었다. 빌딩 8은 재활직업훈련을 시키는 시설이(vocational center) 들어있었다. 역시 이쁜 건물에 자리잡고 있었고 안에는 그들이 클라이언트(고객)라고 부르는 장애인들을 위한 휴식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전자 오락기까지 설치 되어 있는 휴식공간이 인상적이었다. 재활훈련이라고는 하지만 외부의 계약자와 계약을 맺고 일을 맡아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종이 리사이클과 사용 후 음료수 캔을 재생 처리하기 편하도록 압축시키는 작업을 맡아하고 있다. 음료수 캔 압축은 기계로 하는 방식과 수동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재미 있었다. 기계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란다. 그러한 배려를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야할지 아니면 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 해야할지 잘 알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감동했다.

이 재활센터에서 우리를 감동시킨 것은 이것 뿐이아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된 수영장인 딸린 체육관은 웬만한 학교 체육관만큼 규모가 크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다. 또 전체 수용인원은 2백명인데 그들을 돕는 직원은 4백명이라는 사실도 부럽기 그지없는 이야기이다.

재정은 정부보조, 의료보험 그리고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인 메디케이드(MediCaid) 그리고 기금모금으로 해결이 된다고 한다. 리박사는 재정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정부에 충분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예산 심의 때가 되면 미국장애인들은 국회로 가 장애인들을 위

한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Northern Virginia Training Center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워싱턴 구경을 하기로 했다. 이날 차량 지원봉사를 해준 장로의 안내로 워싱턴의 최신 Pentagon City의 근처의 쇼핑몰 관광을 했다. 메이시, 노드스트롬 등 백화점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우리는 차를 쉽게 댈 수 있는 쇼핑몰을 돌아보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주차장은 만원이어서 차를 대기 위해서 주차장을 몇번씩 돌아야 했지만 바로 쇼핑몰 입구에 있는 장애인용 주차장은 텅비어 있었다. 쇼핑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미국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마음 씀씀이를 알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이 문앞에 나타나자 한 미국인이 문을 손으로 고정시킨 채 우리 일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미국

여행 기간동안 여러번 경험한 일이기도 했다. 그들의 그런 태도가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몸에 배서 그런 것일까? 별로 시간이 없어서 대충 쇼핑몰을 둘러보고 다시 메릴랜드 주에 있는 우리의 숙소로 출발했다. 워싱턴시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두 주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이는 주에도 소속되지 않는 특수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몇번씩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두 주를 왔다갔다 하는 특이한 경험을 하곤 했다. 워싱턴시의 북쪽에 위치한 메릴랜드로 올라가는 도중에 미국 국방성인 펜타곤을 보았다. 그 특이한 모양도 모양이지만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엄청난 규모이다. 건물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려면 걸어서는 시간이 너무 걸릴 정도로 건물의 규모는 컸다. 세계의 경찰 국가라는 별로 달갑지 않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생각해 보게 하는 순간이었다. 또하나 우리의 눈을 끈것은 워싱턴 시 거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는 흑인들의 거리이다. 지금까지 보아온 아름다운 워싱턴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거의 황폐했다고 까지 할 수 있는 그 거리의 모습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까지 했다.

다음날 우리는 정식으로 워싱턴 관광길에 나섰다. 토요일이었고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였지만 어제 하루 늦게 도착한 수녀님들이 가세해 모두 10명으로 늘어난 우리 일행은 백악관과 국회의사당등이 있는 워싱턴 시내로 들어갔다.

워싱턴은 여전히 한가한 모습이었지만 백악관이 가까워지자 많은 관광객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평생에 한번 백악관을 구경할 수 있는 미국인들도 드물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워싱턴 시에서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백악관이

아니었다. 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장애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에 우리는 부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인도 한쪽 부분에는 장애자들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턱이 없는 것은 물론 이었고 모든 건물의 입구에도 턱은 보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큰 공공 건물에는 장애인용 입구가 따로 있음을 알리는 안내 표시판이 어김없이 붙어있었다. 미국 장애인법에 의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감탄사는 끝이지 않았다. 백악관, 워싱턴 기념탑, 국회의사당, 제퍼슨 기념관, 조지 워싱턴 대학 등등을 차로 둘러보고 사진도 부지런히 찍었다.

일요일 오전 우리는 베데스다로 이동을 시작했다. 차로 약 한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다. 가는 도중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한인교회예배에 참석하고 인사를 했다. 처음 들어가보는 미국 고등학교는 깨끗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램프 시설 등이 너무 잘 돼 있었다. 물론 화장실에도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한국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30분 가량 차로 달리 베데스다 하이얏 호텔에 도착했다. 도착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푸근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호텔 로비에는 온통 휠체어를 타거나 지팡이를 잡고 있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그리고 많은 장애인들을 한꺼번에 본 것도 처음 인듯하다. 모두다 조금씩은 들떠 있는 모습들이다. 우리는 방배정이 끝난 뒤 모두 함께 모여 회의에 대한 첫 회의를 가졌다. 우리 일행은 두명이 더 늘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사업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은경씨와 자원봉사자로 이은경씨와 함께온 심리학 박사과정에 있는 김민지씨가 베데스다에서 가세한 것이다.

회의는 아침 9시에 시작됐다. 첫날 개막식에는 올 브라이트 미 국무부장관 등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매일 주제를 정해 오전에는 기조 연설과 발제로 이어지고 오후에는 그 주제를 세분화 시켜 6개의 워크숍으로 진행되고 저녁에는 특별세션이 이어진다. 닷새간의 주제는 지도력, 교육, 건강과 가정문제, 고용, 통신과 기술 등으로 짜여져 있었다.

여성 장애인들에게 모두 필요한 주제들이었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싶었지만 언어장벽이라는 벽이 만만치 않았다. 공식 동시통역 언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3개국 뿐이었기에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참가자들은 애를 먹어야 했다. 그래도 세계 곳곳에서 여성 장애인들의 권익확대를 위해 여러 성공적인 활동을 한 사람들의 체험과 그 체험에서 우리나라 오는 운동의 방법들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기에 가능한한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다 들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번 포럼의 가장 큰 수확은 무엇보다도 세계 곳곳에서 온 장애인성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를 놀라게 한것은 비교적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아시아권 장애인 여성들에 비해 아프리카나 유럽 등에서 온 여성들은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보다 언어적 어려움이 덜한 까닭일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에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그들의 삶도 우리 만큼 만만치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힘을 합쳐 어려움을 나누고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포럼에서 가장 인기있었던 행사는 각 나라의 장기자랑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모두 한복을 입고 아리랑을 불렀다.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한 간단한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리는 안다. 그것이 우리

의 공연에 대한 황호일 뿐 아니라 나아가 여성 장애인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서로에 대한 격려의 의미를 지닌 박수라는 것을. 장기 자랑 최고의 인기는 브라질에게 돌아갔다. 휠체어를 탄 여성장애인이 남성과 사랑을 주제로 무언극을 공연했다. 그 공연은 한마디로 아름다웠다. 우리 장애인 자신들도 우리들의 휠체어를 탄 모습이 아름다운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 공연은 우리 모습에 대한 우리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말았다. 브라질 팀의 공연은 폐막식 때까지 모두가들의 화제가 되었다.

또 저녁 스페셜 세션에는 각 지역의 모임이 날마다 있었다. 목요일은 아시아 태평양 코커스가 열리는 날이다. 박영희 대표가 빗장의 활동과 한국에서의 여성 장애인들 활동에 관해 발표를 했다. 또한 아시아 여러나라에서온 여성 장애인들을 만나 앞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함께 활동의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로 약속을 했다.

대회 폐막 전날은 댄스파티가 있었다. 모두 신나게 춤을 추었다. 휠체어를 탔건 안탔건, 너무 빙글빙글 돌아 어지러울 정도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즐기는 문화가 이색하기만 했는데 우리도 어느 틈에 분위기에 섞여 모두 들뜬 기분으로 흔들려 댄 것이다.

대회 마지막날 폐막식이 있었고 아쉬운 작별의 시간만 남았다. 언제 다시 만날 지 알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싸워 나갈 것을 서로 알기에 작별은 더욱 아쉬웠다. 이번 포럼에서 든든한 동지들을 참 많이도 얻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었다.

닷새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이은정씨와 김민지씨와도 헤어져야 했다. 그리고 우리도 서울로 돌아가기 위한 짐을 쌌다. 포럼에서 모은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자료만도 두 상자는 되었다. 닷새동안 얻은 것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워싱턴 내셔널 공항으로 향했다. 아쉬움은 여전하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과 동지들의 곁으로 어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도 만만치 않았다. 디트로이트 공항까지의 비행은 별 문제가 없었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우리의 마음은 점점 들떠가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드디어 생겼다. 디트로이트 공항에 도착해 서울행 비행기 탑승 게이트에 도착해 보니 비행기 출발이 연기 된다고 공고되어 있었다. 암스테르담에서 오는 비행기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비행기 정비 문제까지 겹쳐 출발은 6시간 가량 지연되었다. 겨우 비행기에 타서 안도의 숨을 돌리려는 순간 때아닌 태풍이 몰아쳤다. 활주로에서 맞는 태풍은 우리를 심란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태풍이 맞는 순간 이제는 뜨는가 했더니 기내 방송이 흘러 나왔다. 그때 출발하면 김포공항 도착 시각이 비행금지 시각인 11시를 넘기기 때문에 출발이 하루 연기된다는 것이다.

항공사에서 마련해준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오전 드디어 비행기가 떴다. 잠이 몰려왔고 식사가 나올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눈을 뜨지 못한채 김포공

항까지 왔다.

집으로 돌아온 안도감 그러나 김포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다시 부딪쳐야만 했던 우리의 현실 등이 겹쳐지는 순간이다. 지난 닷새간의 세계 여성장애 지도자 포럼의 흥분은 이제 가라앉히고 힘들지만 우리가 해내야만 하는 우리의 운동으로 다시 돌아가야하는 순간이었다.